



# Song Eun Kyung Cello Recital

## Cello 송언경

첼리스트 송언경은 여러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대중 매체를 통하여 "뛰어난 첼리스트"(인디애나대학 야노스 슈타커 교수), "좋은 소리의 소유자"(보자르 트리오 창립멤버인 그린 하우스 교수), "고결한 연주를 한다"(노스웨스턴 대학 한스 안센 교수), "최고의 연주로 강한 인상을 주었다"(미국 먼시 스타지)고 그녀의 연주에 호평을 받고 있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경희 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Eva Heinitz 장학금으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주자 과정과 박사 과정을 거장 야노스 슈타커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한국 첼로 음악의 목록 및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송언경은 일찍이 부산 시립 교향악단과의 협연과 부산 음악 콩쿨 입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1994년에 도미하여 Pi Kappa Lambda 수상, Ball State University Competition에서 우승하여 협연 및 honor award를 수상하였다.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Brahms Double Concerto와 Elgar Concerto를 인디애나 대학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Huntington Beach Library, 2007년 네델란드 Apeldoorn International Masterclass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비하우스 첼로 앙상블 수석 단원으로 서울 국제 음악제, 뉴욕 한국 영사관, 워싱턴 디 시 프랑스 대사관, 볼티모어 The 3rd World Cello Congress 폐막 연주회에 초청되어 연주 하였다. 2006년 귀국 후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금정문화회관 수요일음악회 초청 독주회 문예진흥기금 후원 독주회, 부암아트홀 초청 독주회 등 독주자로서의 활발한 활동과 Chopin Project 2010 in Busan, 이야기가 있는 Piano Trio Concert, Trio Concert-Three Colours, 부산 창작 음악축제, 아이리스 앙상블 창단 연주회, Opus Feast Concert, 서울 카메라타 첼로 앙상블, 영산아트홀 초청 음악회 등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그녀가 기획한 "첼로와 기타의 만남" 연주회 시리즈가 해운대 문화 회관과 부산 문화 재단에 각각 채택되었다.

음악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예비 음악학교(Pre-college Program)과 Encore/Coda 음악 캠프, 브니엘예고, 동아대학교, 동주대학, 강남대학교의 외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중학교에 출강 중이다.

## Guitar 고충진



-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졸업
- 제2회 대전일보사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쿨 대상 수상
- 독일 알고우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협연
- EBS 스페이스 공감 등 출연
- 유니버설 뮤직에서 음반 "바람이 가르쳐준 노래" 출판
- 현)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예중,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출강

# Song Eun Kyung

송언경 첼로 독주회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SEP. 23, 2011 P.M. 7:30 BUSAN CULTURAL CENTER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송언경 첼로 독주회

첼로와 기타의 만남 II

기타 고충진

- F. Dotzauer
- F. Schubert
- B. H. Romberg
- A. Piazzolla

2011. 9. 23(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J. Dotzauer Pot-pourri, Op.21

유스투스 뢏짜워 / 포프리, Op.21

- I. Poco adagio
- II. Andante
- III. Larghetto
- IV. Andante - Presto

### F. Schubert Sonata in A minor, D.821 □Arpeggione□

프란츠 슈베르트 / 가단조 소나타 “아르페지오네”

- I. Allegro moderato
- II. Adagio
- III. Allegretto

### Intermission

### B. H. Romberg Divertimento from Austrian Folksongs, Op.46

베른하르트 롬베르그 / 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Op.46

- I. Lento - Andante
- II. Allegretto
- III. Allegro non troppo

### A. Piazzolla Histoire du Tango (History of the Tango)

아스토르 피아졸라 / 탱고의 역사

- I. Bordel 1900
- II. Cafe 1930
- III. Nightclub 1960

#### 뢏짜워 〈포프리, Op.21〉

첼로 전공자들에게 뢏짜워를 묻는다면 첼로교본이라고 먼저 말할 것이다. 뢏짜워(1783-1860)는 독일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이다. 첼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그의 연주법과 제자들에게 대한 영향은 드레스덴 첼로 악파라고까지 지칭되었다. 그는 또한 당대에 다양한 곡들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였지만 지금은 그의 첼리스트적 면모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곡의 제목, 포푸리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향기 나는 잎이나 꽃을 넣은 주머니로 알고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아기가기한 작은 곡들을 모아 놓은 곡의 제목으로 사용 되었다. 뢏짜워의 〈포프리, Op.21〉는 처음부터 첼로와 기타를 위해 작곡되었다. 뢏짜워가 이런 흔치 않은 악기 구성의 작품을 작곡한 것은 교회 음악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열정적인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 곡은 아버지와 같이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악곡이며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연주하는 다정한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 슈베르트 〈가단조 소나타, D.821 “아르페지오네”〉

슈베르트(1797-1828)에게 왜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선율로 한번 더 알 수 있다. 전형적인 고전 소나타 형식(1악장 소나타 형식, 2악장 세도막 형식, 3악장 론도 형식)의 가단조 소나타는 기악연주의 기술적인 면과 성악의 선율적인 성격이 잘 조화된 소나타이다. 이 소나타는 1824년 아르페지오네 연주자이자 슈베르트의 친구인 슈스터(Vincenz Schuster)가 의뢰하여 작곡되었다. 아르페지오네는 슈타우퍼(Johann Georg Stauffer)가 1823년 개발한 악기로 첼로와 기타를 합쳐 놓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악기는 기타와 같이 6줄로 튜닝하고 24개의 금속 플렛이 지판에 있으며 연주는 첼로같이 세로로 세워서 활로 연주한다(사진 참조). 이 악기는 잠시 쓰이다가 지금은 이 소나타의 제목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소나타는 첼로와 비올라 악곡으로 널리 사랑 받고 있다.



#### 롬베르그 〈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Op.46〉

롬베르그(1767-1841)는 독일의 첼로 거장이자 작곡가로 첼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다. 첼로 연주기술, 기보법, 첼로 지판 형태 개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작은 악기 제작 등, 롬베르그에 의해 근대의 첼로 형태와 연주법 기틀이 모두 잡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 전역에 연주 여행을 다녔던 첼리스트로, 독일의 주요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또 많은 악곡의 작곡가로서 활동한 롬베르그는 베토벤 작곡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베토벤이 롬베르그에게 첼로 콘체르토 헌정을 제의 하였으나 롬베르그는 자작곡만 연주한다며 사양하였다. 만약에 롬베르그가 베토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한 시대를 대표할 첼로 콘체르토가 탄생되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디베르티멘토, Op.46〉은 앞에서 언급한 뢏짜워 곡과 같이 몇 개 안 되는 첼로와 기타를 위한 이중주 곡이다. 프로그램에는 3악장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느린 4박자의 전주곡과 3박자 오스트리아 민요 풍의 짧고 가벼운 곡들이 3개 나열되어 있다.

####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피아졸라(1921-1992)는 아르헨티나 서민의 춤인 탱고를 세계화 시킨 작곡가로 “탱고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 연주자와 탱고 악단의 리더로 활동하던 중 1953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심포니 작곡 대회에 우승함으로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하게 된다.

그는 프랑스에서 나디아 불랑제(20세기 세계 작곡가들을 교육시킨 거장)를 만났고 그녀에게 부끄럽게 말했던 나이트 클럽 연주자 및 작곡가의 이력(이력)이 오히려 피아졸라 자신만의 음악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 돌아온 후 전통적인 탱고에 클래식과 재즈 요소를 접목시킨 El Tango Nuevo(새로운 탱고)라는 장르를 탄생 시키고 탱고가 콘서트 음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세계인들이 즐기는 탱고 음악이 되게 만들었다. 〈탱고의 역사〉는 1986년에 플루트와 기타를 위해 작곡되었다. 피아졸라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탱고의 모습을 글과 음악으로 표현해 놓았다. 원래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3개의 악장만 연주된다.

**선율집, 1900** : 탱고는 188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시작되었다. 탱고 음악은 처음에 기타와 플루트로 주로 연주되었고 나중에 피아노와 콘체르티나(작은 아코디언)가 포함되었다. 이 악장은 우아함과 생동감이 넘쳐난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에서 이주해온 여자들이 서로 수다를 떨며 경찰들, 도둑들, 선원들 같은 하층민들이 서로 놀리는 모습을 그렸다.

**카페, 1930** : 1930년대는 탱고의 새로운 시대이다. 1900년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탱고에 맞춰 춤추기보다는 단순히 듣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탱고가 좀 더 음악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탱고의 형태는 완전히 변화하여 템포가 느려졌고 멜랑콜리한 화성을 자주 쓰게 되었다. 탱고를 연주하는 악기 구성은 두 개의 바이올린, 두 개의 콘체르티나, 피아노, 베이스로 커졌다. 탱고는 가끔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다.

**나이트클럽, 1960** : 이 시대는 세계가 빠르게 교류하고 팽창하는 시기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와 같이 탱고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발전하게 된다 청중들은 새로운 탱고를 들으려고 나이트 클럽으로 몰려든다. 어떤 탱고들은 혁신적이고 심오하게 개조되었다.

**현대의 공연** : 탱고의 요소들이 현대 클래식 음악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등과 같은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탱고의 선율이 나타난다. 이것이 현재의 탱고이며 또한 미래의 탱고이다.